민주당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일정

광주시장, 내달 3·5·7일 TV토론

10일 시민배심원 통해 최종후보 선출

전남지사, 내달 10·11일 합동연설회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후보가 3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후보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 등 경선일정도 25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경선(4월10일)까지 각 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선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다음달 1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1층에서 갖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한 차례 후보 합동연설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TV토론회도 3차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광주시장 경선 후보 등록을 한 뒤 기호추첨을 시작으로 공식 경선일정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현재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면접을 통과, 최종 경선 후보로 확정된 강운태·이용섭 국회의원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 3명 모두 후보 등록을 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들 후보의 경선 경쟁 첫 일정은 다음달 3일 열리는 1차 TV토론회(광주 MBC 생방송). 다음날인 4일 오후 2시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4층에서 첫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갖고 정책능력과 자질을 평가 받게 된다. 이어 5일에는 광주방송(KBC)에서 2차 TV토론회(녹화)를 가질 예정이며, 7일에는 광주 MBC에서 3차 TV토론회(생방송)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은 명함 배포 등 가두 홍보와 함께 정책 점검 회의와 모의 토론회 등을 가지며 TV토론회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다음달 10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1층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아직 시민배심원에 대한 시행 세칙은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50%가 반영되는 당원 전수여론조사는 다음달 7~9일 3일 동안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당 소속 전체 당원이 17만3천여 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여론조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기관은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에 등록된 15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일정도 잠정 확정됐다. 후보 합동연설회는 4월10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4월11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각각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또 후보 TV토론회는 4월9일(MBC), 12일(광주방송), 14일(MBC) 세 차례 열리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현재 민주당 후보 경선과 관련해 토론회와 합동유세, 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잠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지만 현지 실사 등을 통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일정

3. 31	후보등록 -기호추첨(후보자 대리인) -참관인·대리인 확정 -기탁금 납부
4. 3	-1차:MBC 토론회(생방송) 22:45~00:05
4. 4	-합동연설회 장소: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시간:14:00
4. 5	-2차:KBC 토론회 10:00~11:45(녹화) 17:30~19:15(방송)
4. 7	-3차:MBC 토론회(생방송) 23:05~24:20
4. 10	-시장 경선 장소: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시간:미정

■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일정(안)

4. 7	후보등록
4. 8	기호추첨
4. 9	1차:MBC 토론회(녹화)
4. 10	후보자 합동연설회 장소:목포실내체육관 시간:14:00~16:30
4. 11	후보자 합동연설회 장소:순천시 팔마체육관 시간:14:00~16:30
4. 12	2차 KBC 토론회(녹화)
4. 14	3차 MBC 토론회(생방송)
4. 15~16	경선 여론조사
4. 17	후보선출대회 장소: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시간:13:30~17:30

25일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주당 북구청장 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페어 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의원, 송광운 구청장, 남평오 예비후보, 김재균 의원, 이형석·오형근 예비후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역세권 개발 광주 랜드마크 만들자"

민주 광주 북구 합동토론회, 화순·나주 정견발표회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나주시장, 화순군수 출마예정자의 정책역량과 자질, 도덕성 검증하기 위한 합동토론회와 정견발표회가 25일 각각 열렸다.

이날 오후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북구청장 출마예정자 토론회에서는 송광운 현 북구청장과 남평오·이형석·오형근 예비후보가 각각 참석, 광주 북구 발전에 대한 구상과 정치적 견해 등을 밝혔다.

광주역세권 개발과 관련, 남 후보는 "광주역세권 개발이 광주 발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의 미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북구의 미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예비후보는 "앞으로의 교통은 도로교통에서 궤도교통을 중심으로 변해 갈 것"이라며 "송정역은 산업 역할을 맡도록 하는 등 광주역과 송정역을 차별화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형근 예비후보는 "광주역은 광주권 철도와 지하철 2호선 등과 연계하도록 하는 등 교통중심지로서 역할을 맡게 하고 문화·관광 기능, 비즈니스 물류 기능, 업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광운 청장은 "KTX가 광주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북구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광주시의 계획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에서도 이날 오전 민주당 화순군수, 지방의원 후보 정견 발표회가 열렸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발표회에는 전완준 화순군수, 이윤모·임호환 화순군수 예비후보 등이 '화순 발전'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2천여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 나주 실내체육관에서도 열린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 정견 발표회에서는 임성훈·강인규·이길선 예비후보들이 나서 저마다 지역발전과 주민갈등 해소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

민주당, DJ 사진 안 찾았나 못 찾았나

당사 에어컨 뒤서 분실 일주일만에 발견

3일간 논의끝 뒤늦게 공개…배경 촉각

민주당이 지난 16일 분실했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사진을 중앙당사 회의실 에어컨 뒤에서 찾았다고 24일 밝혔지만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가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지난 21일 찾았지만 후속 대응을 놓고 무려 3일 동안이나 논의를 진행한 뒤에 공개한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 정도 대응책을 논의하고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찾았다고 밝히면 될 것인데 뒤늦게 이를 공개,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찾았다고 밝히면 될 것을 사흘이나 묵혀두는 바람에 뭔가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일주일 만에 분실했던 당사 회의실 에어컨 뒤에서 발견된 것도 의문이다.

중앙당 당직자들이 당사를 촘촘하게 점검했으면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도부가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 민주계 관계자는 "일주일 동안이나 찾지 못했던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분실 장소인 회의실 에어컨 뒤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며 "파문이 확산되자 누가 다시 가져다 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추가로 벌인 뒤 정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비상근 당직자들이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에어컨 뒤에 숨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일단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고 추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유감스런 일이 벌어졌으나 사진을 찾아 다행"이라며 "당에서 계속 조사를 한다고 하니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략공천…띄워주기"

한나라 영입인사 김대식 예비후보 포함

정 훈 후보 "불공정한 게임" 강력 반발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특정 후보의 인재영입 사실을 발표하자 6·2 지방선거에 나설 한나라당 전남지사 일부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경선방식을 놓고 후보 간 신경전을 벌인 탓에 이번 중앙당의 영입인사 발표가 '전략공천 전주곡'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전날 김대식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와 정용화 광주시장 예비후보(전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등 영입인사 9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과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 정병국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영입 환영간담회'까지 가졌다.

이에 대해,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나머지 두 예비후보가 발끈했다. 김대식 예비후보가 평통 사무처장을 그만두고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전략공천설이 나온 터라, 이날 인재영입위가 또다시 영입인사를 발표함에 따라 '설'이 '사실'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것이다.

정 훈 한나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이미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를 인재영입인사로 발표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명단을 발표한 것이라면 지역민들과 당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또 "모처럼 전남도지사 후보에 3명이 공천을 신청했고, 이미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공직생활을 거쳐 예비후보로 등록까지 한 인사를 인재영입인사로 언론에 비쳐주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으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인재영입위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